

## 지역 문화와 방언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꾸러가는 삶의 도구이니, 말 속에는 당연히 그 시대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다. 먹고, 입고, 사는 내용 하나하나가 말로써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삶의 세세한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역 방언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방언에는 그곳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먹는 음식, 주거 환경, 노는 문화가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니, 말도 자연스럽게 다를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글은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방언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 자신이 한반도의 모든 지역 문화에 대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터라, 다루는 대상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전라도, 특히 서남해 도서 지역의 문화와 방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몇 항목은 한국의 보편적 문화에 속하면서도 그 표현 어휘가 달라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음을 밝혀 둔다.

## 1. 당골, 당골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신과 인간 세상 사이를 중개하는 특별한 존재를 필요로 하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갖가지 재앙이나 질병,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텐데, 보통 사람들은 감히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특별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신에게 호소하고, 신의 해답을 사람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이들을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다. 주술사(呪術師)라 하기도 하고, 샤먼(shaman)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라도 지방에서는 무당 대신 ‘당골’ 또는 ‘당골네’라고 부른다.

당골은 무당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 대체로 한강 이북 지역에서 말하는 무당은 신이 내려 무당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병(巫病)을 앓게 되고, 이 무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특정 무당에게 찾아가 내림굿을 함으로써 할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당을 강신무(降神巫)라 하거니와, 강신무는 신이 내린 사람이기에 보통 사람과는 달리神通력이 있고, 신과의 대화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전라도 지역의 ‘당골’은 신이 내린 무당이 아니다. 당골은 대대로 당골 집안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므로, 흔히 세습무(世襲巫)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당골인 탓에 자식이 대를 이어 당골이 된 것이다. 이런 당골은 신이 내리지 않은 탓에神通력은 강신무만큼 강하지 않다.<sup>1)</sup> 반면 집안

1) 전남 신안 지역에서는 ‘당골’과 ‘점쟁이’를 구별한다. 점쟁이는 신당(神堂)을 모시며 점을 치지만, 당골은 신당을 모시지 않으며 굿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당골은 주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굿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도 점쟁이와 다르다. 한편 ‘당골’은 여자 무당을 지칭하는 말이며, 남자 무당의 경우는 ‘재인(才人)’이라는 말을 쓴다.

대대로 당골의 전통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굿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나 춤 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음악인 판소리의 기원을 무악(巫樂)이나 무가(巫歌)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는 이가 많은데, 판소리를 잘하는 소리꾼 가운데 당골 집안 출신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골은 굿을 통해 한 집안이나 개인의 액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그래서 당골은 일정 지역을 자신의 독점 권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당골판 내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골을 찾아 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탓에 전라도 무당을 가리키는 ‘당골’과 표준어의 ‘단골’을 같은 어원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정해 놓고 거래를 하는 집이나 사람을 흔히 ‘단골’이라 부르는데, 이 ‘단골’이 바로 당골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당골’ 무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당골판은 그 자손들에게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다. 마치 요새 문제가 되는,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풍조처럼, 전라도의 당골들은 자신의 당골판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었던 것이다. 이런 세습 과정을 통해 당골들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 일정한 수준의 무악이나 무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당골은 우리 주위에서 거의 찾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른바 미신 타파를 명분으로 우리 무속을 말살하려 했던 일체의 정책도 여기에 한몫을 하였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의술이나 종교의 보급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과거 당골이 맡았던 역할의 대부분은 오늘날 의사와 종교인들이 대신 떠맡게 되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팽창한 한국의 기독교나 서양 의술의 확대는 당연히 당골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던 바, 옛 시절의 당골 대신 점술가가 인기 있는 무속인으로 대접받는 것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점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무속이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 2. 외악사내키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는 왼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연스럽지만,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정작 이렇게 쓴 글이 오른손으로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왼손으로 쓴다는 것이 그다지 염려할 일도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공을 던지거나 글을 쓰는 일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 아들이 왼손으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매를 때려 가며 오른손으로 쓰도록 훈련시켰다는 이야기를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 분이 말하는 이유인즉, 왼손잡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출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자세로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겠느냐는 것이 이유이지만, 그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위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동차의 변속기는 언제나 운전자의 오른쪽에 달려 있고, 야구의 글러브나 골프채 같은 운동 기구도 왼손잡이용을 구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일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오른손잡이가 주류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왼손잡이는 언제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왼손’이란 말 속에 우리의 이런 인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왼손에 상대적인 손을 ‘오른손’ 또는 ‘바른손’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의 어원이 ‘옳은 손’임을 상기하면, 우리 조상때부터 오른손을 쓰는 것은 ‘옳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 왔음에 틀림없다. 영어에서는 오른쪽을 right라고 하거니와, 이 right에는 ‘오른쪽’이라는 뜻 외에 ‘옳다’나 ‘바르다’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서양의 오른쪽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 완전히 같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손’에 포함된 ‘왼’의 뜻은 매우 흥미롭다. ‘왼’은 원래 형용사 ‘외다’에서 온 말인데, 중세어에 보이는 ‘외다’는 ‘그르다’ 또는 ‘옳지 않다’의 뜻을 가졌다. 그래서 15세기 문헌인 「남명집언해」라는 책에는 ‘올거나 외어나’

와 같은 표현이 보이는데, 현대어로는 ‘옳거나 그르거나’ 정도로 옹기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5세기 문헌인 「금강경언해」에 보이는 ‘올흐며 외오물 간대로 보야’와 같은 말도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보야’의 뜻을 갖는다. 현대어에서 형용사 ‘외다’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죽은 말이 되어 버렸지만, 부사로 바뀐 ‘외로’와 같은 표현은 아직까지 남아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은 속담에 있는 ‘모로 가도’ 대신 ‘외로 가도’를 써도 같은 뜻의 속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다’나 ‘외로’의 뜻이 ‘그르다’나 ‘옳지 않게’의 뜻을 생각하면 ‘왼손’의 원래 뜻이 ‘그른 손’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른손을 쓰는 것은 바른 일이지만 왼손을 쓰는 일은 그른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영어에서도 왼쪽을 뜻하는 left는 원래 ‘약하다’나 ‘가치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왼손이나 왼발은 오른손이나 오른발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더 가치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의 경우에도 left는 right에 비해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우리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전라도 말에서 ‘왼손’은 ‘외악손’이라고 한다. ‘외악’의 ‘외’는 물론 형용사 ‘외다’의 어간일텐데 여기에 붙는 ‘악’의 정체는 분명치 않다. 의미상으로 ‘쪽’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상대적인 ‘오른’과 음절 수를 맞추기 위해 붙인 접미사일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어원이 분명치 않다.

짚으로 꼬는 새끼는 오른쪽으로 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왼쪽으로 꼬기도 하는데 이를 표준말로는 ‘왼새끼’라고 하지만, 전라도에서는 ‘외악사내키’라고 부른다. 물론 ‘외악사내키’의 ‘사내키’는 ‘새끼’의 전라도 사투리인데, 전라도 지방에서는 ‘사내키’ 외에도 ‘사챙이, 산내끼, 샌내끼’ 등 여러 말들이 쓰이므로, ‘외악사내키’ 대신 ‘외악사챙이’나 ‘외악산내끼’와 같은 전라도 말도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외악사내키’는 왼쪽으로 꼬아 만드는 점에서 일반 새끼와는 다른데, 이런 ‘외악사내키’는 잡귀의 침범을 막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기를 낳은 집 문 앞에 치는 금

줄, 당제나 부락제를 치를 때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치는 금줄, 그리고 장을 담글 때 향아리 주위나 몸통에 두르는 새끼 등에 모두 ‘외악사내키’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외에도 정월 대보름날 소나 돼지의 목에 ‘외악사내키’를 감아 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마을끼리 행하는 줄다리기용 줄에도 역시 ‘외악사내키’를 사용한다. 이처럼 왼쪽으로 끈 새끼가 잡귀의 침범을 막는다고 생각한 것은 왼쪽 자체가 벽사(辟邪)의 상징이며 신성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왼새끼를 끈다’와 같은 표현이 표준말에 있는데, 이는 ‘일이 비비틀리어 장차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나 ‘비비 꼬아 말하거나 비아냥거리다’와 같은 뜻을 갖는다. 새끼라는 것이 원래 비비 꼬아 만드는 것일텐데, 굳이 왼새끼의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오른새끼에 비해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간치동저구리

설날에 입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가리켜 ‘설빔’이라 하는데, 이때 쓰인 ‘빔’이란 말은 옛말의 ‘빋다’에서 온 것이다. 15세기 문헌인 「월인석보」에 보면 ‘쵸 브르고 빋어 莊嚴호엿거든’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의 ‘빋다’는 ‘꾸미다’나 ‘장식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설빔’이란 곧 설을 맞아 예쁘게 꾸미기 위해 입거나 신는 새 옷 또는 새 신발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하지만 추석에는 ‘추석빔’이라고 한다. 물론 전라도 말에서 ‘설빔’이나 ‘추석빔’과 같은 말은 쓰이지 않는다. 그저 ‘설옷’이니 ‘추석옷’이니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는 아이들 설빔으로 흔히 ‘때때옷’을 입혔다. ‘때때옷’은 ‘꼬까옷’이라고도 하는데, 알록달록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아이들에게만 쓰는 어린이용 말이다. 전라도 말에서도 ‘고까’라는 말은 쓰이지만, 설빔으로 입는 알록달록한 옷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좋은 옷’ 또는 ‘고운 옷’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와, 우리 애기 고까 입었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자 아이들은 때때웃으로 색동저고리를 즐겨 입는다. ‘색동’의 ‘색’은 색이며, ‘동’은 저고리 소매에 이어 대는 동강의 조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색동’이란 오색 천 조각을 잇대어 만든 저고리 소맷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색동저고리’란 결국 이런 색동을 사용하여 소매를 만든 저고리를 뜻한다. 전라도 말에서는 색동저고리 대신 ‘깁치동저구리’라는 말을 쓴다.

설날의 전날 즉, 선달 그믐날을 표준말에서는 ‘까치설날’이라 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와 같은 동요에 보이는 ‘까치’가 바로 이 말이다. 선달 그믐과 까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까치설날’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사실 까치와 선달 그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달 그믐은 옛말에 ‘아춘설’이라 하였다. 이 때의 ‘아춘’은 ‘작은’이라는 뜻이니 ‘아춘설’은 ‘작은설’이라는 뜻이었다. 즉 정월 초하루가 제대로 된 설날이라면 선달 그믐은 이보다는 못한 작은 설이라는 뜻이니, 마치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관계와 같다고 할 것이다. 15세기 말에서 조카를 ‘아춘아들’이라 하였고, 질녀를 ‘아춘딸’이라 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 당시의 ‘아춘’이 ‘작은’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아춘’이란 말을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자, ‘아춘설’의 ‘아춘’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뜻 모를 ‘아춘’을 기쁜 소식을 물어다 주는 ‘까치’와 관련시키게 된 것이다. ‘아춘’과 ‘까치’의 소리가 비슷한 것이 이 두 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주된 근거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춘설’은 후대에 ‘까치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게 되었다.

이런 까치설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표준말로 ‘까치저고리’라고 한다. 그래서 ‘색동저고리’와 ‘까치저고리’는 그 의미에 있어서 같지 않다. 색동저고리가 색동을 대어 만든 저고리 일반을 가리킨다면, 까치저고리는 까치설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까치저고리는 결국 특정한 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의미함으로써 훨씬 제약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라도 말에서는 ‘까치’를 ‘깁치’라고 하는 탓에 ‘까치설날’에 입는 저고리가 ‘깁치동저구리’가 된 것이다. 전라도 말에서는 표준말처럼 ‘색동저고리’와

‘까치저고리’의 대립이 없이 언제나 ‘깐치동저구리’라는 한 낱말로 쓰이기 때문에, 전라도 말의 ‘깐치동저구리’는 까치설날뿐 아니라 언제나 입을 수 있는 색동저고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원래 까치설날에 입었던 ‘깐치동저구리’가 그 의미를 확대하여 색동저고리에까지 쓰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확대 현상은 전라도 말에서 ‘색동’이란 말을 ‘깐치동’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색동’에 포함된 色 때문에 오색의 알록달록한 의미가 연상되지만, 이것을 ‘깐치동’으로 바꾸면 그러한 색깔의 의미는 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깐치동’이란 순전히 ‘까치설날’이란 말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깐치동’은 ‘까치설날’과 ‘색동’의 두 낱말이 합해져서 생겨난 새로운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국’과 ‘탕’

우리의 식사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밥을 먹기 위한 보조 식품으로 반찬과 국이 딸린 것이 특징이다. 반찬이 없다면 싱거워서 밥을 먹기 힘들 것이고, 국이 없다면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국은 서양의 수프와는 그 기능이 전혀 다른 셈이다. 서양 식단에서 수프는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한 전체의 하나일 뿐, 우리처럼 식사 내내 떠마시는 음식은 아니다. 따라서 수프는 결코 음식을 쉽게 삼키기 위해 마시는 국과 같은 기능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국은 서양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그들은 흔히 ‘soda’ 또는 ‘beverage’라고 부른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자 가게나 햄버거 가게, 심지어는 중국 식당에 가더라도 종업원이 맨 먼저 묻는 것은 음료수이다. 콜라를 마실 것인지 주스 종류를 마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료수는 음식을 먹는 내내 목을 축이기 위해 마시는 점에서 국과 공통점이 있다. 다만 우리의 국은 약간의 소금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찬의 구실을 하는 점에서 음료수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식단에서 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국이 없을 경우, 아예 밥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라면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를 얻게 된 것도 라면의 국물 맛 때문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수가 서양이나 중국과 달리 국물에 국수를 만 것이 대부분인 것도 모두 국물을 워낙 좋아하는 우리의 입맛 때문이라 하겠다.

이처럼 밥을 쉽게 삼키기 위해 생겨난 국에는 그밖에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장점이 덩으로 더 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돼지고기 반 근만 있어도 훌륭한 고깃국을 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은, 적은 양으로도 온 식구가 늘려 먹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우리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을 가리키기 위해 우리말에는 ‘국’과 ‘탕’의 두 낱말이 쓰인다. ‘국’이 순수 우리말이라면 ‘탕’은 한자어 湯에서 온 말이다. 湯의 원 뜻은 <끓이다>인데, 우리말에서는 ‘국’과 같은 뜻으로, 아니면 ‘국’의 높임 표현으로 쓰인다. ‘탕’이 ‘국’의 높임말로 쓰이는 것은 제사 때 올리는 국을 가리킬 때이다. 제사란 조상들을 대접하는 의식이므로 일상 생활보다 더 높은 표현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전라도 사람 가운데는 제사 때의 ‘탕’을 ‘탕국’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한자어 ‘탕’이 명료한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뜻을 갖는 순수 우리말을 덧붙인 것인데, 이 ‘탕국’의 구조는 따라서 ‘역전앞’이나 ‘외갓집’과 같은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탕’이 항상 ‘국’의 높임말로 쓰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국’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운탕, 대구탕, 복어탕, 삼계탕, 오리탕, 염소탕, 토끼탕, 보신탕, 자라탕, 용봉탕, 추어탕’ 등에 보이는 ‘탕’은 ‘국’보다 높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처럼 ‘국’과 ‘탕’이 같은 높이로 쓰일 때에는 서로 쓰이는 경우가 구별되는 듯하다.

우선 채소 종류로 만든 경우에는 ‘탕’ 대신 ‘국’을 쓴다. ‘토란국, 시래기국, 시금치국, 배추국, 무국, 미역국, 된장국’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그래서 ‘감자국’과 ‘감자탕’은 내용물이 다르다. 감자국이 감자가 주된 재료라면, 감자탕은 감자에 고기 종류가 섞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더구나 ‘감자탕’은

근래에 들어 유입된 것으로서, 전라도 지방에서는 그저 ‘감자국’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생선도 집에서 흔히 먹는 ‘동태’나 ‘오징어’ 등은 ‘국’을 쓰지만, 상품으로 개발된 ‘생태탕, 대구탕, 조기탕, 매운탕’에는 ‘탕’이 쓰인다. ‘복어탕’도 전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복국’이라 불렀지만, 근래에 들어 상품으로 대중화되면서 ‘복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추어탕’ 역시 전라도에서는 흔히 ‘미꾸라지국’이나 ‘웅구락지국’ 등으로 불리었으나, ‘추어(鰍魚)’와 같은 한자어를 쓸 때에는 ‘탕’이 결합되어, ‘추탕’ 또는 ‘추어탕’이라고 한다. 그밖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탕’이라 하지 않고 ‘국’이라 부른다. 소뼈를 고아 삶은 ‘곰탕’도 전라도에서는 흔히 ‘곰국’이라고 했다. ‘보신탕’도 전라도에서는 ‘개정’ 또는 ‘개정국’이라 하여 ‘국’을 사용하였다. 이 ‘개정’이나 ‘개정국’은 표준말의 ‘개장’, ‘개장국’에서 변이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밖에 어쩌다가 먹게 되는 식품에는 ‘탕’이 쓰인다. ‘삼계탕’이나 ‘오리탕’ 또는 ‘자라탕’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채소로 만들었거나, 우리 식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오르내린 것, 가정에서 만든 것,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 된 국거리 종류에는 ‘국’이 붙고, 반대로 최근에 개발되었거나 상품화된 것 그리고 한자어로 된 말이나 별식으로 먹는 종류에는 ‘탕’이 주로 붙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복국’과 ‘복탕’, ‘곰국’과 ‘곰탕’, ‘웅구락지국’과 ‘추어탕’, ‘개정국’과 ‘보신탕’ 등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 ‘국’을 사용했던 말들이 점차 ‘탕’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짐작하게 된다. 아마도 집안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 상품화되면서, 우리말 ‘국’ 대신 한자어 ‘탕’을 즐겨 사용하게 된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해장국’과 ‘떡국’이 있다. ‘해장국’은 상품화된 것이 보통인데도 ‘탕’ 대신 ‘국’이 쓰여 예외처럼 보인다. 그리고 ‘떡국’은 다른 국이나 탕이 밥과 함께 먹는 것에 비해 밥을 대신하는 유일한 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떡국’이 과연 국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람에 따라서는 ‘떡국’을 ‘떡죽’이라 하는 이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사정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5. 자네

갓 결혼한 부부들이 고심하는 것 가운데 호칭 문제가 있다.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이라면 기왕의 호칭을 당분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결혼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사귀 사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불러야 할 경우, 못내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된 부부처럼 ‘여보’라고 부르면 너무 노숙한 느낌이 들 것이고, 아이가 없으니 ‘아무개 엄마’나 ‘아빠’와 같은 호칭도 불가능하다. 근자에는 흔히 ‘자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자라면 들어줄 만하지만, 남자가 이런 말을 쓴다면 어쩐지 낮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전라도 남편이라면 흔히 아내에 대한 특정한 호칭 없이 그저 ‘어이’라고 부르는 수가 많다. ‘어이’라는 부름말은 ‘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다. 그래서 ‘어이’와 어울리는 인칭 대명사로는 ‘자네’가 알맞다. ‘대사 치니라고 자네가 질 옥봤네’라고 말한다면, 집안의 큰일을 치르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의 말로 제격이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다. ‘자네’는 상대를 어느 정도 대접하는 느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전라도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아, 남편은 아내에게 ‘자네’라고 부르면서 ‘허소’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허씨요’처럼 높임의 말을 써야 한다.

부부 사이의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지방에 따라 조금씩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중부 지방의 부부라면, 부부끼리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인데, ‘여보’의 어원은 ‘여기 보오’이다. 그것은 마치 ‘여보게’처럼 아랫사람을 부르는 말의 어원이 ‘여기 보게’인 것과 같다. 이처럼 ‘여보’에는 기원적으로 ‘-오’라는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어미는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전라도 말의 ‘-소’보다 상대를 대접하는 느낌이 더하다. 전라도 말에도 이 ‘-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밖에 인기척을 느꼈을 때,

‘거그 누군가?’라고 하는 경우와 ‘거그 누구요?’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높임의 차이가 있다. ‘거그 누군가’가 ‘허소’에 해당한다면 ‘거그 누구요?’는 바로 어미 ‘-오’를 사용한 말인 것이다. 그래서 중부 지방의 부부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서로를 대등하게 대우하는 느낌을 준다. 물론 중부 지방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반말하는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라도 지방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대등한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경상도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라’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우째 이카노?’와 같은 말은 전라도 말로 고친다면 ‘어째 이러냐?’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말인데, 전라도라면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말이지만, 경상도 남편들은 서슴없이 이런 말을 아내에게 사용한다. 이런 점을 보면 경상도 남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내를 낮추는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과거의 경상도 남편은 이와 달랐다. 예를 들어 17세기 달성 지역의 말로 쓰여진 편지 글을 보면, ‘자내도 병든 조식들 데리고 혼자서 근심하는 줄 닛디 못 호디 브리고 멀리 나오니 아마도 과거 사람을 그르 밍그는 거시로 쇠’(=자네도 병든 자식들 데리고 혼자서 근심하는 줄 잊지 못하지만, 버리고 멀리 나오니 아마도 과거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일세.)처럼, 과거를 보기 위해 집을 떠난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는 아내를 걱정하는 편지 속에 ‘자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적어도 17세기의 경상도 남편의 말은 오늘날 전라도 지역의 남편의 말투와 완전히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7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내에 대한 말투가 현저히 낮아졌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오늘의 말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상도 부부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전라도, 그리고 중부 지방인 셈이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 가운데 서로에게 ‘해라’를 하는 수가 많다. 특히 오랜 기간 연애했 사이라면 이런 말을 쓸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말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완전히 평등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언뜻 보아 언어의 민주화가 진일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양반들이나, 점잖은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면서 ‘하오’를 사용했던 것을 상기하

면, 이러한 평등은 이른바 하향 평준화인 것이다. 즉 서로를 낮춤으로써 대등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니, 평등은 얻었으며,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맛을 잃어 버린 아쉬움이 있는 변화라 하겠다.

## 6. 택호(宅號)

어린 시절에는 이름을 부르던 사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문화이다.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마저도 이름 부르는 일을 삼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개는 ‘아무개 아범’이나 ‘아무개 어멈’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남자의 경우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잦지만, 여자의 경우, 특히 집에만 있는 주부라면 자신의 처녀 시절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어느새 아이의 이름을 앞에 붙인 ‘아무개 엄마’로 불리는 것이 예사이다. 이처럼 아이 이름을 붙여 여자를 부르는 방식은 한국 여자들의 전형적인 호칭 방식이기도 한데, 결혼한 여자를 부르는 방식은 이외에도 친정의 지명을 따서 부르는 방식이 있다. 이른바 ‘택호(宅號)’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담양에서 시집온 사람은 ‘담양댁’(전라도 지역에서는 ‘댐앵떡’이나 ‘댐앵떡’으로 불린다.)으로, 그리고 그 남편은 으레 ‘담양 양반’으로 불렸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촌수에 따라 친정(또는 처가)의 지명을 붙여 부르는데, 예를 들어 ‘담양 고모’나 ‘담양 고숙’ 또는 ‘담양 당숙모’나 ‘담양 아짐’, 그리고 ‘담양 당숙’이나 ‘담양 아제’ 등과 같은 호칭이 사용된다.

이처럼 택호는 주로 시집 또는 시집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었지만, 친정에서도 결혼한 여자는 이름 대신 시집의 성을 따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를 들어 김씨 성을 가진 남편에게 시집을 갔으면 ‘김집’, 이씨에게 시집을 갔으면 ‘이집’으로 부르는 것이 표준말의 용법이다. 전라도에서는 ‘집’ 대신 한자어인 ‘실(室)’을 사용하여 ‘김실이’ 또는 ‘이실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말은 순위 사람이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표준어가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전라남도 진도나 신안 등 서남 해안 지역에서는 육지와 다른 흥미있는 택호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진도 조도에 있는 관매도라는 섬에서 시집온 여자를 흔히 ‘볼매수네’(또는 ‘볼매단네’)라고 부른다. 이때의 ‘볼매’는 관매도의 ‘관매(觀梅)’라는 한자어 명칭이 있기 이전의 우리 고유의 지명이다. 즉 옛날부터 이 섬은 ‘볼매섬’이라 불리었고, 아마도 일제 시대에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서 ‘관매도’라 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토박이들은 아직도 이 섬을 ‘볼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볼매’에서 시집온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흔히 ‘볼매수’라고 부른다는 점이다.(딸인 경우는 ‘볼매단’이라 한다.) 아이의 이름이 외가의 지명에 접미사 ‘수’를 결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때 붙는 ‘수’라는 접미사는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역어의 ‘보’와 같다. 예를 들어 ‘피보’라는 말 대신 ‘피수’라는 말도 있고, ‘똥보’ 대신 ‘똥수’라는 전라도 말도 있기 때문이다. ‘볼매수’라는 첫 아들을 가진 여자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매수네’라고 불린다.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육지 지역에서는 ‘택(宅)’이라는 한자어를 쓰지만, 이 지역에서는 ‘네’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쓴다는 점이다. 물론 표준어에서도 ‘네’는 가족 전체를 가리키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하며, 이것은 중세어에 ‘-들’의 존칭으로 쓰였던 형태이었다. 그런데 서남 해안 지역에서는 이 ‘네’가 가족 대신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볼매수네’라는 택호는 육지라면 응당 ‘볼매택’이라고 불러야 했을 이름이다. 그런데 이 서남 해안 지역의 택호 방식은 단순히 친정 지명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정 지명이 들어간 첫 아이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육지의 택호 체계와 ‘아무개 엄마’라고 하는 식의 호칭 체계를 합한 셈이 되었다.

## 7. 산다이

전라남도의 서남해 도서 지역에는 명절이나 쉬는 때를 맞아 비슷한 나 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일이 있다. 물

론 다른 지방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일은 흔히 있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는 일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처럼 노래방이 발달한 경우라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래방을 찾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남해 도서 지역처럼 마을 사람들끼리 그것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래판을 벌이는 일은 결코 찾아 보기 힘든 일인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래판을 ‘산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후산도 산다이’니, ‘월향리 산다이’니 해서 지역 이름을 ‘산다이’ 앞에 붙여 부르곤 한다. 이것은 이들 노래판이 지역에 따라 그 특색을 달리 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속학자 나승만은 이 ‘산다이’를 경기 지역의 놀이판 ‘산대놀이’의 ‘산대’와 관련시키기도 한다.<sup>2)</sup> 다만 산대놀이는 탈춤을 근간으로 하지만 전라남도 도서 지역의 산다이는 노래판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탈춤이 발달하지 않고 대신 노래가 발달하였다. 판소리가 대표적인 경우이거나, 판소리 말고도 ‘진도아리랑’이나 ‘강강수월래’ 또는 ‘육자배기’처럼 민요가 발달한 것이 사실이다. 산다이는 이러한 남도의 노래가 발달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준 노래판이라 하겠다.

## 8. 다리, 밤다리, 승에놀이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상여를 메고 가는 상여꾼들은 망자의 가족, 친척들을 상여 위에 올려 놓고 망자가 저승가는 데 필요한 노자를 보태라고 두들겨 패기도 하는데, 이를 ‘다리’라 한다. 또한 슬픈 초상집의 분위기를 위로하기 위해 밤에 동네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부르기 좋은 노래와 춤, 상여소리 등을 하고 이에 따라 상가에서는 여러 차례 술과 밥을 내 놓기도 한다. 이러한 다리는 주로 밤에 열리므로 ‘밤다리’라고 한다.

2) 그러나 음운론적으로 전라도 방언의 /다이/와 중부 방언의 /대/를 대응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전라도 방언에서 과거의 이중모음 /ay/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밤다리에는 전문적인 소리꾼이 초청되어 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육자배기나 단가 또는 훈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소리를 하는 수가 많다.

‘밤다리’가 밤에 상가를 위로하기 위한 떠들썩한 노래판이라면, ‘승에놀이’는 밤다리를 포함하면서 시간상으로는 낮과 밤에 행하는 노래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판은 출상 전날이나 출상 당일날 그리고 매장하는 당시에까지 행하는데, 실제 민속학자의 관찰에 의하면 전남 신안 하의도의 부속섬인 능산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승에놀이’가 행해진 예가 있었다고 한다. 이 승에놀이는 밤다리와 마찬가지로 동네의 남녀 노장청년층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밤에는 상가에서 불을 피우고 놀기도 하고, 낮에는 동네 앞 바닷가나 장지에서 노래와 춤을 추기도 한다. 이 때는 물론 북이나 장고, 경쇠와 같은 악기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육자배기 등을 부르고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살풀이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다. ‘승에놀이’의 ‘승에’는 ‘상여’의 방언형으로 보인다.

## 9. 초분, 독다물

오늘날 온 나라의 산이 묘지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매장보다 화장을 권하는 시류가 퍼지고 있지만,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초분’이라는 독특한 장례 제도가 있었다. 옛날에는 왕대를 쪼개서 줄로 엮어 만든 ‘발삼’ 위에 시신을 놓아 두었으나, 근래에는 산에서 돌을 옮겨 와 바닥에 깔 뒤 그 위에 시신이 든 관을 올려 놓고 그 위를 다시 이엉으로 덮어 둔다. 그러다가 3, 4년이 지나 육탈(肉脫)이 되어 뼈만 남게 되면 이 유골을 다시 매장하는 것이다.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이처럼 초분이라는 중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예를 들어 음력 정월에 땅을 파게 되면 동네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거나, 또는 정월이나 설달 또는 특정한 날에 죽은 이는 반드시 이런 초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잡아 놓은 뱀자리에 들어갈 운이 그 해에 맞지 않아 적당한 해를 기다려야 하는 등의 이유



가 있기도 하다. 이런 초분은 밭의 가장자리나 마을의 변두리 지역 또는 따로 지정된 곳에서 행하는데, 정해진 장소는 흔히 ‘초분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어른이 죽으면 초분을 하지만 돌림병 등으로 아이가 죽거나, 정월에 아이가 죽으면 초분 대신 ‘독다물’이라는 독특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이것은 죽은 아이를 돌로 눌러 두거나 옹기에 넣어 두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독다물’ 대신 ‘독다말’ 또는 ‘독담’이라고도 부른다.

## 10. ‘마리’와 ‘물리’

우리가 사는 집의 모양이나 구조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가 다르고, 산물이 다르니, 자연히 집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부 지방은 대체로 일자 모양의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그 구조도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의 차례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으면서 두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실 구실을 하고, 부엌은 안방 옆에 붙어 있어, 안방을 위한 난방을 하는 곳으로 쓰인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히 부엌에서 만든 음식은 안방에서 먹게 되므로 안방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서남해 도서 지역의 가옥 구조는 이와 조금 다르다. 일자 모양을 갖는 점에서는 남부의 여타 지역과 다를 바 없으나, 방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 지역에서는 우선 방의 명칭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안방은 ‘큰방’이라 부르고, 건넌방은 ‘모방’이라 부른다. 대청에 해당하는 공간은 ‘마리’라 하고, 부엌은 ‘정지’라 한다. 여기에 창고 기능을 하는 ‘고방’이 덧붙을 수 있다. 이들 각 방의 배열은 대체로 ‘정지-큰방-마리’로 이어지고, ‘정지’ 앞쪽에 ‘모방’이 붙어 있다. ‘고방’은 ‘마리’ 앞에 붙을 수가 많다. 이런 구조는 따라서 ‘모방’과 ‘고방’이 앞쪽으로 약간 나와 있고 나머지 중심되는 ‘정지-큰방-마리’가 약간 뒤로 물러 있으면서 일자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흥미로운 것은 ‘마리’이다. 구조에서 보듯이 ‘마리’는

집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큰방’의 옆에 붙어 있다. ‘마리’는 대체로 바닥이 평평한 판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대청’과 같지만, 그러나 그 기능에서는 대청과 상당히 다르다. 우선 대청은 거실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마리’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마리’는 곡식을 넣어 둔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다. 또한 여기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특히 집을 관장하는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동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sup>3)</sup> 그러니 대청이 열린 공간이라면 ‘마리’는 닫혀 있는 공간인 셈이다. ‘마리’는 경우에 따라 판자 대신 흙이나 시멘트로 바닥이 되어 있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리’라 하거나 아니면 흙의 경우 ‘토마리’라는 말을 쓴다. ‘마리’ 앞에는 앞서 말한 ‘고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광’에 해당하는 곳이다. 대체로 수확한 곡식이 가마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어서 ‘마리’의 공간을 보완하는 곳이기도 하다.

집 앞에는 마루에 해당하는 ‘물리’가 있다. ‘마리’와 ‘물리’는 아마도 그 기원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능이 달라지면서 언어도 분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마루’의 첫음절에 대해 한반도의 대부분의 방언은 ‘마’나 ‘말’을 대응시키고 있는 반면 ‘물’을 대응시키는 방언은 경북과 전남의 일부 지역뿐이다. 전남의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의 ‘물리’는 이 점에서 특이한 형이라 할 수 있는데, 기왕에 ‘마리’라는 독특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어 ‘마’형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기능의 공간으로서 ‘물리’라는 어형이 분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 도서 지역이라도 곳에 따라 ‘물리’ 대신 ‘토지’와 같은 형을 따로 쓰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마리’라는 공간 때문에 형태적 분화를 보이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육지에서도 ‘마루’와 ‘대청’은 바닥이 모두 판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어형은 다르다. ‘마루’는 순수 우리말을 쓰지만 ‘대청’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마루’와의 구분을 위해 ‘대청’이라는 한자어가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발달은 마치 ‘마리’와 ‘물리’, ‘마리’와 ‘토지’처럼 어형이 분화되는 것과

3) ‘성주동우’의 ‘동우’는 ‘동이’의 방언형이다.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서남해 도서 지역은 ‘마리’가 옛 형을 고수하는 반면 ‘물리’나 ‘토지’가 새롭게 변한 후대형이라는 점에서, 육지 지역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익수(1985),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에 관한 조사 연구 - 장산도와 하의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3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 이기갑(2000-2003), 전라도 말맛. 전라도닷컴(<http://www.jeonlado.com>).
- 이종철·선영란·오미순(1985), 「신안군 장산도·하의도의 신앙 민속」, 『도서문화』 3집.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
- 전라남도·호남문화연구소(2002), 『전남 향토문화 백과사전』. 태학사.